

한경협

ESG Bulletin

2024. 10 | 제 8 호

K-ESG 얼라이언스 사무국에서는 회원서비스 강화와 ESG 저변 확대를 위해 한경협 ESG경영자문단이 ESG 핵심 이슈에 대해 꼭 짚어 설명드리는 'ESG Bulletin'를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ESG 평가대응 실무와 공급망보고서 발간의 필요성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지속가능센터장
(한국경제인협회 ESG경영자문단)

국내 “ESG경영”이라는 키워드를 돌이켜 보면, 지난 2020년 이후 주요 상장기업(금융회사 및 대기업) 중심으로 본격화하다가 최근 2~3년 주요 상장기업에게는 인식확산과 체계수립 등 ESG경영의 초기단계 수준이 어느정도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글로벌 측면에서도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포춘 500대(매출 기준)기업 중 ESG보고서를 발간한 기업비중이 2011년 20%에서 2020년 90%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런 글로벌 ESG 이슈 중에서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투자자 및 고객, 글로벌 이니셔티브 등의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공급망(협력사) ESG 대응”이다.

현재 국내 주요 기업이 발간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내용 중 극히 일부에서만 <공급망>관리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과 최근 글로벌 공급망공시 관련 트렌드(CSDDD 등)를 고려하면, <공급망보고서> 발간의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이는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의 2026년 이후 일정과 공급망실사지침(CSDDD)의 2027년 이후 실사일정 등을 고려하면, 일부 대기업의 경우 <공급망보고서>의 사전 발간 준비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1. ESG공급망 이해

통상 ESG공급망은 기업이 조달 과정에서 협력사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인 영역에 대해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업 내부 뿐 아니라 공급망 전반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고객, 투자자, 정부, 국제표준 등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은 **공급망 전반의 ESG 경영 수준**을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 대기업 30개사 및 협력사 108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2023.1.11)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 30개사 중 협력사에 대한 ESG 평가를 실시한 기업 비율이 2019년 17개사(56.7%)였던 것에 반해 2021년에는 26개사(86.7%)로 약 30%p(9개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급망 ESG에 대한 관리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에서는 공급망 ESG 관리에서 협력사에 인센티브보다 페널티 부여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동 설문에서 ESG공급망 평가를 수행중인 기업(26개사) 중 69.2%(18개사)가 평가결과를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등의 방식으로 구매정책에 반영하는데, 구매정책에 반영하는 18개사 중 인센티브를 부여한 곳은 13개사, 페널티를 부과한 곳은 16개사로 나타나, 아직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페널티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인식수준(점)				대응수준(점)			
	전체	대	중견	중소	전체	대	중견	중소
CBAM	55	60	57	53	35	53	37	32
EU CSDDD	44	55	47	41	35	47	41	30
CU CSRD	46	55	49	43	38	52	44	33
Battery Regulation	30	42	29	30	24	29	23	23
ESPR	34	55	34	32	32	38	35	29
PPWR	41	65	36	41	38	40	38	37
6개 항목 평균	42	55	42	40	34	43	36	31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ESG 제고관점에서 기업지속가능성 실사대응을 위한 정책과제(2024.08.28)>

또 다른 조사에서는, 국내 수출기업 205개사(대기업 15개사, 중견기업 69개사, 중소기업 121개사) 대상의 설문조사(2024.03, 상공회의소)를 한 바가 있다. 이 조사에서는 국내 수출기업의 공급망 ESG 평가와 관련이 깊은 EU공급망실사지침(이하 CSDDD) 등 주요 ESG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수준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식 수준 측면에서 대기업은 55점으로 평균 이상이지만, 중견기업은 47점, 중소기업은 41점으로 나타났고, 대응수준 측면에서 대기업은 47점, 중견기업은 41점, 중소기업은 30점으로 기업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인식 수준과 대응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급망 ESG평가가 관리측면에서 어려운 이유는, 1) 공시기준의 보편성 부재, 2) 협력사의 자생적 ESG경영 추진 애로 때문이다. 우선, 기존 글로벌 ESG 공시기준은 기업의 자발적 공시를 독려했기 때문에 기업들 간 공시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였다. 또한 통일된 공시지표가 부재하여, 기업들의 정보공시 혼란이 가중되기도 하였다. 특히, 공시기준마다 협력사 및 공급망에 대한 정보공시 기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공시를 요구하는 세부 내용이 모두 상이하여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 ESG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각 ESG 공급망 정보 공시 요구 현황 >

	GRI	IFRS (S1)	ESRS	SEC
기후변화	●	●	●	●
환경오염	●	●	●	-
수자원 및 해양자원	●	●	●	-
생물다양성	●	●	●	-
순환경제	●	●	●	-
에너지 관리	●	●	-	-
폐기물 및 유해물질 관리	●	●	-	-
임직원(노사관계 및 인권)	●	●	●	-
협력사 및 공급망	●	●	●	-
지역사회	●	●	●	-
소비자 외 기타 사회적 자본	●	●	●	-
사업 모형 및 혁신	●	●	-	-
거버넌스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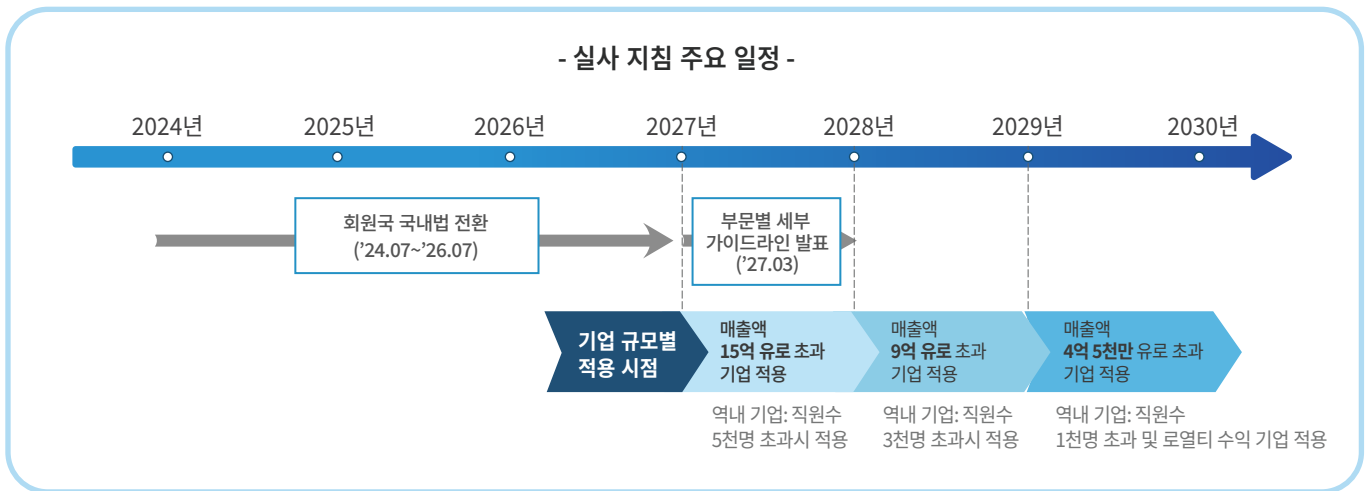
둘째, ESG경영에 대한 협력사의 준비와 대응수준이 저조하여 대기업들은 공급망 ESG관리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력사들은 대기업과 달리 ESG경영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 및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정보 수집도 어렵기 때문에, 대기업은 이러한 공급망 기업들을 대상으로 ESG 관련 재무적·비재무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2. 글로벌 ESG공급망 관리 지침 동향 국내 적용 예상기업

기업에 대한 공급망 ESG 관리 요구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써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지역사회 및 인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강조되고 각국에서 공급망 실사를 법제화하면서, 공급망 ESG 관리는 기업의 의무로 점차 변화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7월부터 CSDDD 발효를 발표하고, 2027년부터 산업부문별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기업들의 공급망 실사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해부터 기업 규모별로 공급망 실사 의무화 조치가 순차 적용될 예정이므로, 해당 실사 지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실사 이행 의무화 동향에 맞춰 전사 차원에서 신속히 대응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주요 추진 결과 >



기업 규모에 따른 실사 의무화 대상

		2027년부터	2028년부터	2029년부터
역내 기업	직원수	5천명 초과	3천명 초과	1천명 초과
	순 매출액 (전세계)	15억 유로 초과	9억 유로 초과	4.5억 유로 초과
역외 기업	순 매출액 (EU 역대)	15억 유로 초과	9억 유로 초과	4.5억 유로 초과

실사 의무화 대상(예시)

기업	역내/역외	직원 수	순 매출액	적용 연도
A사	역내	2천명	9.2억 유로(전 세계)	2029년부터
B사	역외	역외기업에 대한 기준 없음	9.2억 유로(EU 역내)	2028년부터
C사	역내	900명	2억 유로(전 세계)	미정
D사	역외	역외기업에 대한 기준 없음	1.8억 유로(EU 역내)	미정

자료: KOTRA, “EU 공급망 실사 지침 Q&A”

우리나라의 EU 대상 수출기업(2023년 기준)은 18,043개로 전체 수출기업 95,015개의 19%를 차지한다. 이 중에서 대기업은 573개, 중견기업은 1,221개, 중소기업은 16,249개이다. 수출 대기업의 61.5%, 중견기업의 55%가 EU에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 중소기업의 17.7%만이 EU에 수출하고 있다.

< EU CSDDD 적용 대상 국내기업(추정) >

업종	기업명	2023년 유럽 매출액(억원)	비고
반도체	삼성전자	239,342	대기업
반도체	SK하이닉스	9,346	대기업
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15,153	대기업
자동차	현대자동차	238,094	대기업
자동차	기아	237,384	대기업
가전	LG전자	121,293	대기업
철강	포스코홀딩스	24,685	대기업
화학	LG화학	128,071	대기업
배터리	LG에너지솔루션	119,985	대기업
건설/상사	삼성물산	13,528	대기업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23,538	대기업
기계	두산밥캣	16,643	대기업
자동차부품	한온시스템	50,651	PEF
타이어	금호타이어	9,708	중견기업
타이어	넥센타이어	10,045	중견기업
자동차	KG모빌리티	9,521	중견기업
이차전지	에코프로비엠	30,581	중견기업
바이오	셀트리온	7,805	중견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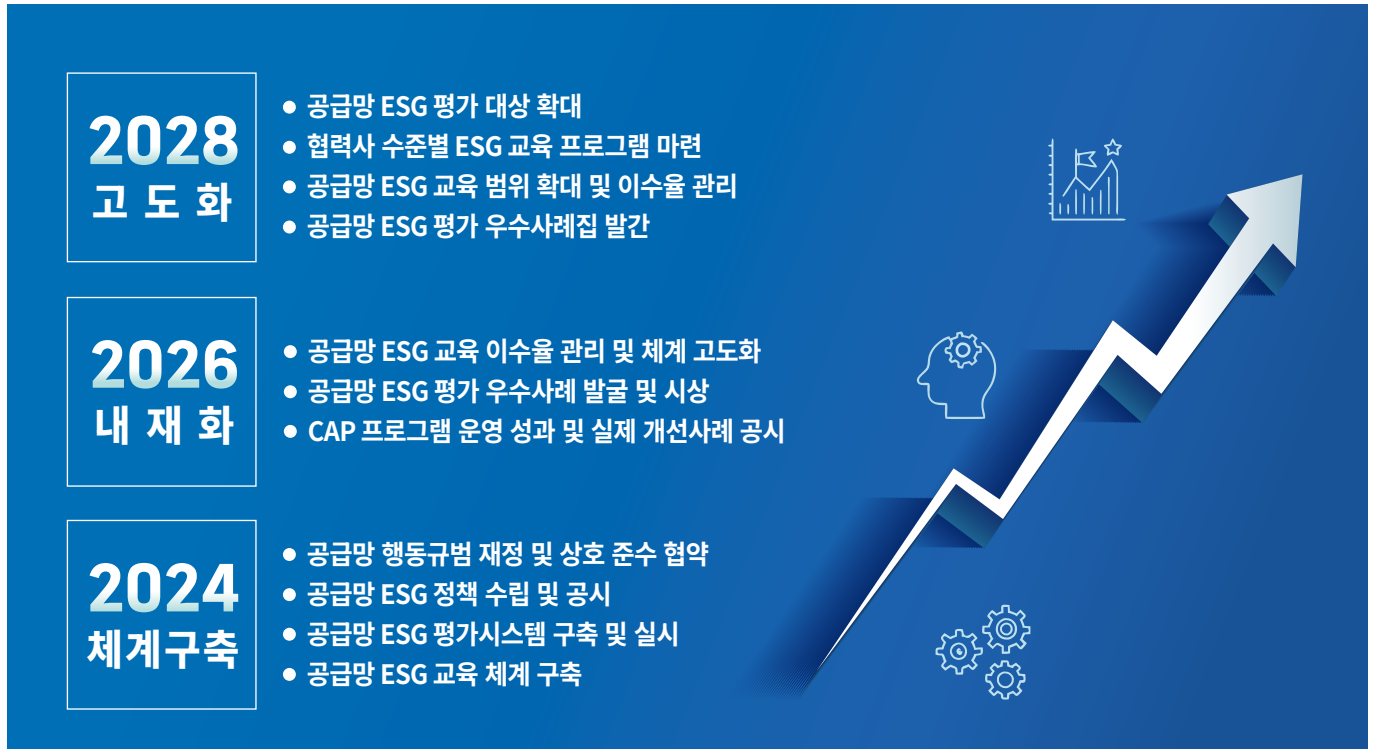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ESG 제고관점에서 기업지속가능성 실사대응을 위한 정책과제(2024.08.28)>, 금융감독원 DART 기준의 EU 매출액

3. 공급망 관리 프로세스 및 공급망보고서 발간

공급망 관리는 총 3단계(관리기반 구축, 실사·관리 이행, 관리성과 공유)의 11개의 세부과정을 통해서 진행된다. 전체 과정은 통상적인 협력사 ESG 평가와 유사하지만, 최종적으로는 ESG 공급망보고서 작성을 주 목적으로 한다.

기업은 자신의 ESG경영 추진 목표 이외에도 공급망 관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적·정성적 목표를 수립하여 기업 내·외부, 특히 협력사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는 기업의 현황 및 공급망 수준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한다.

< 공급망 관리 중장기 로드맵 예시 >



공급망 관리의 총 11개의 세부과정 중 <고위험군 식별하기>와 <개선조치계획(CAP) 도출하기>, <공급망 ESG 관리 보고서 작성하기> 등 핵심적인 세 단계에 대해서 알아본다. **1) 고위험군 식별하기**는 고위험군 협력사는 현장점검 후 ESG 리스크 개선이 단기간 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협력사를 지칭한다. 기업은 고위험군 협력사를 대상으로 개선조치계획(CAP (Corrective Action Plan)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ESG 리스크를 완화한다. 또한, **2) 개선조치계획(CAP)**은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과 장기 시정 사항을 구분하고 장기 시정 사항에 대한 추진시기, 추진방식, 완료 시점 등을 협력사와 협의하여 개선과제를 수립한다. 또한, 원청사는 협력사가 제출한 CAP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또는 재작성을 요청하고, 확정된 계획의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따라서, **3)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ESG 관리 방침 및 현황에 대한 공급망관리 공유**, 그리고 공급망 ESG 관련 데이터 관리 등의 내재화 구축을 <ESG공급망 보고서 발간>을 통해 완성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